

KIA, 꼬인 불펜부터 풀어라

과부하 불펜진 자신감 떨어져

오늘 NC전 김광수 임시 선발

가을잔치 꿈을 이루기 위해 불펜 정상화가 시급하다.

KIA는 지난주 kt, 롯데, LG를 만났다. 상대전적과 최근 분위기에선 KIA의 우위가 점쳐졌지만 노게임이 선언됐던 한 경기를 제외한 다섯 경기의 전적은 2승3패였다. 이 중 4경기는 1점 차로 승패가 갈렸다. 숨막히는 한 주를 보내면서 불펜의 실태가 꼬였다. 너무 믿어서, 믿지 못해서 불펜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사이드암 박준표가 뜨거운 이름이 됐다. 박준표는 지난주 5경기에 모두 등판을 했다. 휴식일이었던 15일, 노게임이 선언된 17일을 빼고는 12일 넥센전부터 21일 LG전까지 8경기에 모두 출석했다. 과부하 걸린 박준표는 주말 두 경기에서는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불넷 두 개만 남겼다. 불넷 상대는 히메네스다. 20일 히메네스에게 불넷을 허용하고 내려왔던 박준표는 21일에도 히메네스를 상대하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고, 폭투와 불넷을 남기고 강판됐다.

불펜을 이끌어왔던 베데랑 김광수도 21일 8-9 역전패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8회 8-5에서 김광수가 4경기 연속 마운드에 올랐다. 김광수는 첫 타자를 내야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2개의 2루타 포함 4연속 안타로 동점을 허용한 뒤에야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남은 주자까지 홈을 밟으면서 김광수는 패를 기록했다.

지친 박준표·김광수는 충격적인 역전패의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18일 선발로 나와 5이닝을 소화했던 고효준까지 불펜에 투입됐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김광수

최후의 보루 임창용도 4연투에 이어 지난 주에도 3경기에서 3.2이닝을 소화하며 분전했지만 야수진의 수비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 반면 한승혁과 한기주는 면목없는 한 주를 보냈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2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13	72	1	40	0.643	0.0
2	NC	105	62	2	41	0.602	5.5
3	넥센	112	63	1	48	0.568	8.5
4	SK	114	56	0	58	0.491	17.0
5	KIA	112	54	1	57	0.486	17.5
6	LG	110	52	1	57	0.477	18.5
7	한화	111	49	3	59	0.454	21.0
8	롯데	111	50	0	61	0.450	21.5
9	삼성	110	48	1	61	0.440	22.5
10	kt	108	41	2	65	0.387	28.0

지난 18일 롯데와의 연장 승부에서도 벤치만 지킨 한승혁은 최근 다섯 경기에서 0.2이닝만 소화했다. 19일 0.2이닝을 던져 행운의 승리투수가 됐던 한승혁은 21일 김광수가 뒤늦게 강판된 뒤 등판, 박용택에게 안타를 맞은 뒤 바로 교체됐다. 다음 투수는 박준표였다. 12일 넥센전 이후 마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던 한기주도 21일 선발 출전해 4회도 버티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비로소 마운드에 출격했지만 1.1이닝에서 그의 역할이 없었다.

믿음이 지나쳤던 필승조는 무거운 짐을 지느라 컨디션이 푹 떨어졌고, 불펜을 지키고 있는 선수들은 경기감각과 자신감이 떨어졌다.

지열한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지만 진짜 승부처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뒷심 싸움을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면서 꾸준히 전력을 끌어가야 한다.

선발난 속 불펜까지 꼬여버린 KIA는 이번 주 상대전적에서 밀리는 NC(5승6패), 삼성(5승7패), 두산(4승10패)과 대결한다. 첫 경기부터 임시 선발 김광수가 나서서 만큼 불펜 운영이 한 주의 성적을 좌우하게 된다. 벤치의 '운영의 묘'와 실수 연발 야수진의 '집중력'이 필요한 비장 상황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경남고 좌완 이승호, 호랑이굴로 온다

KIA, 신인 10명 지명

'호랑이 군단'이 차세대 에이스 후보로 경남고 좌완 이승호를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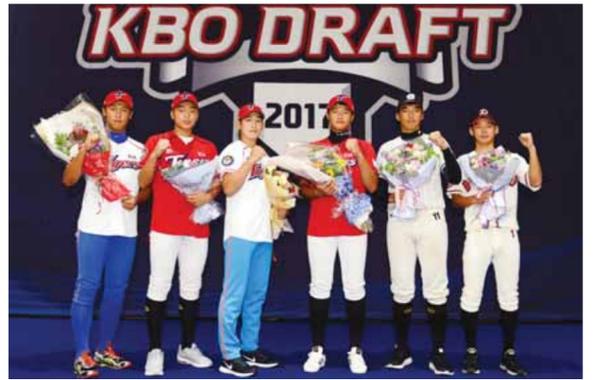
2017 KBO 신인드래프트가 22일 서울 양재동 데카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승호를 가장 먼저 호명한 KIA는 10라운드에서 모두 지명권을 행사했다.

187cm·88kg의 건장한 체격을 지닌 이승호는 좌투좌타로 유연한 투구폼을 바탕으로 최고 145km의 직구를 던지며, 커브와 체인업 등 변화구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특히 제구력과 배짱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능력이 장점이다.

KIA는 2라운드에서는 박진태(건국대·투수)를 지명했다. 180cm·85kg의 사이드암 박진태는 148km에 이르는 직구가 위력적이다. 구속이 꾸준하고, 경기 운영 능력이 좋아 사이드암 대학 투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힌다.

3라운드에서 지명된 김석환(동성고·외야수)은 좌투좌타로 신체조건(187cm·87kg)이 좋고, 공수주를 두루 겸비하고 있다. 2차 지명 교고 선수 중 외야 최대이라는 평가다. 4라운드의 강찬영(인창고·투수)은 190cm의 큰 키에서 내리키는 140km대의 직구와 슬라이더가 좋아 발전 가능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KIA는 이외에 5라운드 송후섭(개성고·투수), 6라운드 김용인(성균관대·투수), 7라운드 박정우(덕수고·외야수), 8라운드 최승주(아탑고·내야수), 9라운드 정윤환(진흥고·투수), 10라운드



22일 2017 KBO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KIA에 지명된 박정우(오른쪽부터), 송후섭, 김석환, 박진태, 이승호와 우선지명 선수인 유승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IA 제공>

이정훈(경희대·포수) 등 총 10명을 지명했다.

송후섭은 189cm의 큰 키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김용인은 변화구 구사 능력이 좋은 왼손 원 포인트 릴리프 지원이다. 박정우는 청소년 대표팀에 선발된 외야수로 발이 빠르고 야구 센스가 뛰어나다. 최승주는 공수에서 탄탄한 기본기를 가진 전천후 내야자이다. 정윤환은 140km 중반대의 직구와 변화구를 던지며 제구가 좋다. 이정훈은 어깨가 강하고 송구 능력이 좋은 포수다.

한편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의 꿈을 이룬 지역 출신 선수들이 있다. KIA의 선택을 받은 김석환과 함께 김진호(NC·투수), 박진수(한화·외

야수), 이주형(한화·투수), 이재홍(넥센·내야수) 등 동성고 5인방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순천 호천고 내야수 박성환도 SK의 2라운드 선수로 프로에 진출하게 됐다. KIA 유니폼을 입게 될 정윤환과 두산 선수가 된 동국대 외야수 박창빈은 진흥고 출신이다. 송원대도 내야수 이병규(넥센)가 넥센 지명을 받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프로 야구 선수를 배출했다. 해외파인 화순고 출신의 포수 신진호는 N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또 KIA 김민호 수비 코치의 아들인 경기고 투수 김성훈은 한화 유니폼을 입고 대를 이어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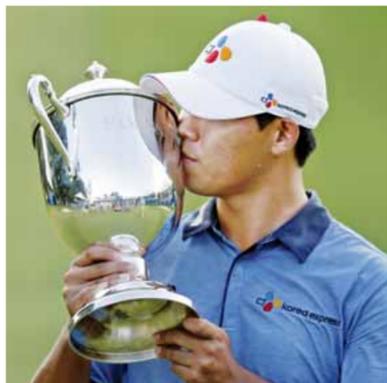
김시우, PGA 진출 4년 만에 첫 우승

윈덤 챔피언십 우승

김시우 주요 수상 경력

- 2016년 PGA 윈덤 챔피언십 우승 (대회 사상 두번째 최연소 우승)
- 2016년 PGA 바바솔 챔피언십 2위
- 2015년 PGA 뉴스 센터빌오픈 2위
- 2015년 PGA 웨딩컴퓨터 스톤브래클래스 우승
- 2013년 PGA투어 입성
- 2012년 PGA 켈리파잉스쿨 최연소 합격
- 2011년 국가대표

*역대 PGA투어 한국인 챔피언 최경주·양용은·배상문·노승열·김시우



김시우의 우승으로 PGA투어 한국인 챔피언은 최경주, 양용은, 배상문, 노승열에 이어 다섯명으로 늘었다. 4타차 리드를 안고 최종 라운드에 나선 김시우는 초반부터 버디 사냥에 나서며 우승을 향해 질주했다. 1번홀(파4)부터 두 번째 샷을 할 한 뼘 거리에 붙어 쉽게 버디를 잡아냈다. 김시우는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됐기에 끝까지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면서 "자신이 있었고 핀을 곧장 겨냥하는데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9번홀까지 버디 3개를 더 보태며 순항하던 김시우는 후반 3타를 잃으며 흔들렸지만 도널드와 짐 퓨릭(미국) 등도 주춤한 덕에 타수 차는 지켰다. 3타차로 쏘아온 퓨릭이 3퍼트 보기로 주저앉은 15번홀(파5)에서 김시우가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며 4타차로 달아난 게 승부처였다.

16번홀을 마친 뒤 쏟아진 폭우 탓에 1시간 가량 경기가 중단됐지만 김시우는 17번홀을 파로 막아낸 뒤 18번홀(파4) 버디로 우승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될성부른 떡잎' 김시우(21·CJ대한통운·사진)가 마침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시우는 2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 시지필드 골프장(파70·7127야드)에서 열린 PGA투어 윈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쳐 최종합계 21언더파 259타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루크 노달(잉글랜드)을 5타차로 따돌린 김시우는 미국 무대 진출 4년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달성했다.

손흥민·석현준·황희찬, 슈틸리케호 승선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명단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아시아 최종예선 1, 2차전 출전 선수 명단이 발표했다.

2016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손흥민과 석현준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황희찬은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다.

월드컵 대표팀 감독은 22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컨벤션센터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차전 중국과 2차전 시리아에 출전할 21명의 선수를 공개했다. 눈여겨볼 선수는 손흥민과 석현준, 그리고 황희찬이다.

손흥민의 대표팀 승선은 리우 올림픽 개막 전에 결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협상에 나섰고, 최종예선 첫 경기인 중국전에만 출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최근 터키 트라브존스포르로 이적한 석현준은 소속팀 적응 문제로 2차전 시리아전에만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전 최전방 공격수는 마네 황희찬(20)이 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슈틸리케 감독은 "손흥민, 구자철, 지동원 등 최전방 공격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직은 소집 후 결정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중원은 '캡틴' 기성용이 맡는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창용도 이름을 올렸다.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올 시즌 첫 골을 넣은 구자철도 포함됐다.

수비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기희, 김영권, 홍정호, 장현수는 중국 선수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1차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으로 간 광주시빙상경기연맹 선거 잡음

낙선자, 선거무효 가져본 신정

통합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별 통합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2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광주시빙상경기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53)씨는 최근 "규정을 어긴 채 회장 선

거가 치러졌다"며 광주지법에 '선거무효 등 가져본 신정'을 냈다.

A씨는 지난 3일 치러진 광주시빙상경기연맹 회장 선거에 대한 부당성을 들어 김모(41) 신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A씨는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 총회

를 통해 회장을 선출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었고 체육회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회장선거관리규정이 아닌, 종목단체규약에 따라 약식으로 치러졌다"면서 가져본 신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또 빙상과 무관한 대의원을 선출, 빙상경기연맹 초대 회장 선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72개 종목단체 중 95% 이상의 통합 및 회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지우기자 dok200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 식사업무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하반기 직원모집
프린트 22~55세, 주방반모 (출퇴근 및 숙박가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